사진과 글쓰기를 통해 발견하는 나

사진 글쓰기 교실

<글을 쓰다, 나를 쓰다>

"글은 쓰고 싶은데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글쓰기에 있어 가장 막막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써야할까, 참 많이도 고민이 됩니다.

'내 글이 재미가 있을까?'
'그럴듯한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나올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글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글을 '글'처럼 써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책에서 봤던 그럴듯한 '글'처럼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글'이 아니라 '나'를 써 보는 거요.
그럼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저 잠깐 다른 사람을 만나 조금 어색하게 엷게 웃으며
이 말 저 말 하는 것 처럼요.

글을 쓰고 읽는 것은 그저,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이
'글자'를 통해 서로 잠시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나 헤어지는 일입니다.

너무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나를 써보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글 써서,
행복해집시다!^^

강의 계획서

강좌명 : 글쓰기 교실 <글을 쓰다, 나를 쓰다>　　강사명 : 미후지 김경은

강좌소개	〈글을 쓰다, 나를 쓰다〉는 그간 글을 써보고 싶고, 관심을 가졌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모르던 사람의 마음에 마중물을 부어주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글을 품고 살아왔는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글쓰기는 풍부한 지식과, 문장의 유려함, 다양한 표현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활자라는 도구를 통해 나의 삶과 감정을 쓰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특별함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작가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스스로 증명해갑시다^^
수업목표	그간 살아온 별거없어 보이는 나의 삶과 지나친 감정들이 알고보면 모두 글이었음을 깨닫고, 누구나 충분히 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훌륭한 글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더불어 사진, 픽토그램, 상장, 홍보전단 등의 다양한 글쓰기 도구들을 활용해 글쓰기가 진지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부담을 덜어내고 누구나 즐겁고 유쾌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임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대상	성인 대상
강의시간	1개반 2시간 (○)　　/　　2개반 각 1시간 (　　)
교재/재료	필기도구
필요장비	빔프로젝터, PC ,스피커

강 의 계 획

주별	강의단원	세부내용	비고 (재료)
1주	읽기가 먼저일까 쓰기가 먼저일까	그간 우리가 작고 있던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오해를 덜어내고, 글쓰기란 활자를 도구 삼아 '나를 표현하는 일' 임을 알자 *** '시작' 이라는 키워드로 자신만의 특별한 시작에 대한 자유글 쓰고 문우들과 공유하기**	
2주	글이 나를 쓰는가 내가 글을 쓰는가	글쓰기를 원칙을 수행해야하는 것으로 여기면 쓰기가 어려워진다. 글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 '나만의 특별한 이력서를 써보고 공유하기**	

3주	‘글 쓰는 법’ 이란 건 세상에 없다	글을 쓰기 전 작법을 보려하는 것은 수영을 하려고 수영책을 보는 것과 같다. 정해진 방법은 없다. 내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유일한 작법.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일상의 사진으로 자유글 창작해보기**	
4주	글은 곧 ‘나’ 다	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글이란 내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일이다. 나는 얼마나 글을 ‘나’ 스럽게 쓰고 있는지 바라보자. ***창작한 글을 함께 보며 나와 다른 문우들의 일상과 마음을 함께 나누기**	
5주	글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작가 자신이다.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드러내고 발견하는 일이다.나 자신이 글의 유일무이하고도 고갈되지 않는 소재다 ***나처럼 여겨지는 존재에 대해 자유글 창작해보기**	
6주	글쓰기는 나의 상처를 드러내 타인을 위로하는 일	나의 삶과 상처와 기억을 머금은 글은 나를 위로함을 넘어 타인까지 위로한다. 남을 위해 글을 쓰지 말자. 나를 위해 글을 쓰자 ***창작한 글을 함께 보며 서로를 공감해주고 응원하기**	
7주	이야기는 나의 주변에 널려있다.	글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움직이고 숨 쉬는 곳에서 모든 글이 탄생한다. ***늘 걸어다니는 길에서 눈길이 가는 것을 사진으로 찍고 자유 에세이를 써보기**	
8주	소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 진다’	소재를 일부러 찾으려 하면 쉽지 않다. 소재는 글을 쓰려고 마음 먹은 자에게 다가와 붙는다 ***창작한 에세이를 함께 보며 각자가 느끼는 특별한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기**	
9주	글의 제목은 언제 짓는가?	아이를 키우다 이름을 짓지 않듯이 글쓰기도 제목이 먼저다. 제목은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을 향한 작가의 축복과 감성이 묻어나야한다. ***일상에서 고마운 존재를 사진으로 찍고 상장 형식의 에세이를 써보기**	
10주	글의 특별함은 바로 ‘나다움’ 에서 나온다	모든 예술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다양한 글과 형식으로 나를 보여주자 ***창작한 상장형식의 에세이 함께 보고 글의 장르와 형식은 나의 표현 도구임을 깨닫기**	
11주	글쓰기의 원료인 ‘화두’ 란 무엇인가?	글을 쓰려 그럴듯한 소재를 찾지만 그 소재에 나의 화두가 흐르지 않으면 글이 나아가지 않는다. 작가의 원천 에너지인 ‘화두’ 를 알아보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소재로 자유글 창작해보기**	
12주	글쓰기는 나의 대한 사랑을 찾아가는 일	작가가 하는 일은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다. 글을 쓰는 나, 삶을 사랑가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창작한 글을 함께 보고 앞으로 작가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다지기**	